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12(금) ~ 2025.12.18(목)

제공일시 2025 12 26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12(금) ~ 2025.12.18(목)

제공일시 2025 12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사실상 철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수정해, 신차 배출가스를 2021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 생산이 가능해졌음. 집행위원회는 기후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으나 업계에서는 핵심 정책의 실질적 완화로 평가함

-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차량 친환경 전환 관련 신규 규제, 배터리 지원 계획, 규제 간소화 조치가 포함됐고, 2030년 배출가스 50% 감축 중간 목표 역시 완화됨

(뉴시스 2025.12.17)

2. 미국 16개 주,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전기차 충전 보조금 중단은 무모한 조치"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집행을 중단하자, 캘리포니아·뉴욕 등 16개 주와 워싱턴DC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주정부들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투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원 예산에 대해 교통부가 신규 집행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으로 전기차 보급과 기후 대응 정책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주요 정치·정책 쟁점으로 부상함

(임팩트온 2025.12.17)

3. 글로벌 태양광 설치 20년 만에 첫 감소…中 과잉생산·美 정책 전환 '이중 악재'

- 블룸버그NEF가 발표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649GW로, 2025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이 역성장 국면에 진입함

-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태양광 수요의 양대 축을 형성해 왔으나, 중국의 공급 과잉과 미국의 정책 전환으로 두 시장 모두에서 신규 설치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

- 블룸버그NEF는 태양광 산업이 수년간의 급속한 확장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주요국 정책 변화가 글로벌 수요 성장세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임팩트온 2025.12.17)

국내 정책

1. 기후부, '배출권 할당' 보다 정밀하게 예측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고,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해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임

- 기후부는 개정된 기준을 토대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배출권 할당을 연내 완료할 계획임

(투데이에너지 2025.12.16)

2. 일회용 컵·종이컵 규제 강화…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

-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컵 사용을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함. 일회용 컵 유상 전환, 빨대 요청 시 제공 원칙, 종이컵 단계적 사용 금지 방안을 담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제품의 제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임

(데일리365 2025.12.17)

3. 열(熱)도 전기로 생산…기후부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 체계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번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정열공급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열 부문 탈탄소 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제시됨

(에너지경제 2025.12.16)

글로벌 기업

1. "아마존, 오픈AI에 15조원 투자 추진…자체 AI칩 사용 포함"

- 아마존이 오픈AI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자체 개발한 AI칩 '트레이니엄'과 아마존웹서비스(AWS) 컴퓨팅 자원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번 논의에서는 오픈AI의 기업가치를 500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음

(이데일리 2025.12.17)

2. 포드, 195억달러 비용 계상…美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주력 차종 철수 [EV 전환 속도조절]

- 포드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총 195억달러의 비용을 계상하고, 주력 전기 픽업트럭의 개발·생산을 중단함

- 비용 대부분은 채산성이 낮은 전기차 사업 철수와 배터리 사업 재검토에 따른 감가상각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도 전략 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됨

(이투데이 2025.12.16)

3. BMW, 독일에 배터리 '직접 재활용' 센터 가동…화학 공정 생략해 원자재 회수

- BMW 그룹이 독일 바이에른주 잘힝에 배터리셀 재활용 역량 센터(CRCC)를 가동하고, 화학 공정을 생략하는 '직접 재활용' 기술을 적용함

- BMW는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임팩트온 2025.12.16)

4. 인도로 향하는 빅테크…아마존·MS, 500억달러 투자 발표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함

- 두 기업의 투자 규모는 합산 500억달러를 넘으며,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인프라 확장이 주요 투자 목적임

(블로터 2025.12.13)

국내 기업

1. 서부발전, '1.3조' UAE 1500㎿ 태양광 '출사표'…프랑스 EDF와 컨소시엄

- 한국서부발전이 프랑스 EDF 자회사 EDF-R, UAE 마스다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00㎿ 규모의 UAE 자라프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 참여함

- 사업 수주 시 서부발전은 전체 사업비 1조3000억원 가운데 약 22.5%인 3000억원을 부담하며, 내년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더구루 2025.12.17)

2. 두산에너빌리티, 8068억 규모 SMR 전용 공장 짓는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8068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소형모듈원전(SMR)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 투자를 진행함

- 창원공장 부지에 전용 공장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 최적화와 혁신 제조시설 구축을 병행해 연간 20기 수준의 SMR 제작 역량을 확보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 2025.12.17)

3. 현대모비스, 태국법인 운영 시작…동남아 영향력 키운다

- 현대모비스가 태국에 자동차 부품 판매 법인 Mobis Parts(Thailand) Co.,Ltd.를 신설하고 현지 운영을 시작함

- 해당 법인은 생산이 아닌 AS 부품 판매에 주력하며, 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은 세 번째 동남아 거점으로 현대차·기아의 지역 시장 공략을 지원함

(CEO스코어데일리 2025.12.16)

4. 삼성E&A, 美 SAF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청정에너지 시장 공략 가속

- 삼성E&A가 미국 DG Fuels와 루이지애나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함

- 수주 금액은 약 230억원이며, 삼성E&A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약 30억달러 규모의 본사업 연계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뉴스워치 2025.12.15)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12.12(금) ~ 2025.12.18(목)

제공일시 2025 12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미 상원,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전기료 전가' 조사 착수…MS·메타 등 답변 회피

-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크리스 반 홀런·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가 일반 소비자 전기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식 조사에 착수함

- 상원의원들은 알파벳 산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코어위브, 디지털 리얼티, 에퀴닉스 등 7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구조와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답변을 내년 1월 12일까지 요구함

- 조사 배경에는 블룸버그의 실태조사가 있으며, 에너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리드 스테이터스와 DC바이트 자료를 활용해 미국 전역 2만5000개 전력망 노드를 분석했음.

-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도매 전력가격이 5년 전 대비 최대 2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가격 급등 지역의 70% 이상이 데이터센터 집적지 반경 80k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지역 전기요금 상승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

- 미 에너지부 산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3년 전체 전력의 4.4%에서 2028년 6.7~12%로 증가할 전망이며, 전력 사용량은 같은 기간 176TWh(테라와트시)에서 325~580TWh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중부대서양 지역 전력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의 경우 2024~2025년 전력용량 경매 비용이 22억달러에서 2025~2026년 147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93억달러가 데이터센터 수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시됨

- PJM 경매 결과로 볼티모어 지역 주민들의 월평균 전기료는 17달러 상승했으며, 최근 경매로 2026년 중반부터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음

- 상원의원들은 기술 기업들이 전력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유리한 요금을 확보하고, 관련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상원의원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데이터센터가 미래 에너지 사용 증가와 송전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선불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한에서 강조함

(임팩트온 2025.12.17)